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물)

東友會報

1985年 10月 31日 第106號【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申
인쇄인 鄭申九

편집부장 申興來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직) 267-8568 · 274-7449
(교) 267-8131-9(465)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東國雄飛의 새 章을 연다 “醫科大學新設”



◇ 신설계획중인 医科大学 조감도

「침범의 體得」 「慈悲의 實踐」
「不退의 精進」이라는 교육지표로
1906년 5월 8일 개교한 모교가
이제 80년째의 찬연한 역사와 전통 위에
東國雄飛의 새 章을 펼친다.
문교부의 승인에 따라 86학년도부터
신설될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모교의 빛나는 전통과 더불어
교육·연구·진료의 3대기능을
수행해 나아가게 된다.
이와같이 전통국인이 지향하고 있는
東國理想에로의 끊임없는 노력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더욱 그 빛을 떨칠 것이다.

B형 간염(肝炎),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의 개발로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치료약이 없는 B형 간염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공포의 질환이었습니다.

일단 전염되면, 신체적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큰 간염은 백신이 개발되면서 미리 예방이 가능해졌습니다.

B형 간염에 있어서는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예방만이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누가 먼저 간염을 예방해야 하나?

- ① **신생아·취학전 아동**: 이 연령층에서는 거의 감염이 안된 상태이므로 (항체 보유율 10% 미만) 우선적으로 접종받아야 합니다.
- ② **국민학교 학생**: 집단생활의 초기 단계에 있는 이 연령층은 항체보유율이 20% 미만이므로 검사없이 접종받는 것이 경제적(經濟的)입니다.
- ③ **성인(成人)**: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성인층은 항체보유율이 평균 50% 이상이므로 국가적인 낭비(浪費)를 막고,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혈청검사후 접종받는 것이 좋습니다.

꼭 3회 접종을 필하십시오.

간염 백신은 6개월에 걸쳐 3회 접종을 완료하셔야 완전하게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백신은 생산(生産)에서 접종까지 신속한 유통과정(流通過程)과 냉장보관(冷蔵保管)의 철저를 기하므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덜 예민한 검사시약과 검사방법의 문제로 항체(抗体)의 시비(是非)가 있었으나, 예민한 검사법의 보편화(ELISA, RIA 법)로 말썽이 없어졌습니다.

헤파박스-B는 국내외에서 실시한 수차례의 임상연구 결과 3회 접종으로 효과가 확실합니다.

우리의 공지 - 우리技術, 우리原料로 만든

녹십자 **헤파박스-B**

● 잘 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8505-HBV-1



주식회사 **녹십자**

● 본사: 584-0131 代 ● 판매: 서울 741-0131, 부산 83-8977, 대구 752-0447, 대전 623-0131, 광주 56-5781, 전주 3-7310, 미산 2-4951, 원주 42-2759, 청주 2-3546, 인천 73-0132

한 우물을 파는 精誠이 技術의 深淵를 더 해 갑니다.

16일, 제15차 定期總會 개최

모교本館서 회장단 추대·예결산 심의

- 본회 제15차定期總會가 오는11월16일(土) 오후3시 모교본관3층 교
- 수세미나실에서열린다. 본회의 부속이한 사정으로 연기되어 열리게된다
- 번 정기총회에서는 제13대會長·임원추대와 선임, 사업및 예결산의 심
- 의와 승인, 본회와 모교발전을 꾀할 각종 事業計劃을 수립하게 된다.

동창회관 건립추진등 논의

제15차 본회 정기총회가 오는 11월16일(土) 오후3시 모교 본관3층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본회 회칙 제14조(1)항에 의거하여 소집되는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4월26일 모교 동국관에서 있었던 제47차 정기이사회 의결사항인 鄭在哲회장의 제13대회장 추대와 임원추대를 하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한 84년도 사업및 결산감사보고와 85년도 사업계획안및 예산안 심의와 승인을 있게 된다.

鄭在哲회장이자, 모교 黃壽永총장 추사 순으로 진행될 이날 총회에서는 본회의 조직강화·장학사업·동창회관 건립추진등 각종 역점사업이 토의되며 학부·조직·재정·홍보·장학·체육등 각 위원회별 담당 부회장과 감사·이사들의 선임

이 있게된다. 이날 정기총회 본회의를 마친후에는 모교 나한관에서 연회도 갖을 예정이다.

社開科 성기총회

16일진고개식당서

社會開發學科동창회(회장=金正一·유니급 대표)는 11월16

일 하오6시 충무로 진고개식당에서 8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한편 3년의 짧은 역사를 자발적인 참여의식으로 극복하고 동문간의 유대강화와 후배 장학사업등에 열렬한 업적을 쌓아온 同會는 年2회 발행하고 있는 「동창회보」를 이번호(5호)부터 4면으로 증편, 발행하는등 굳건한 기틀을 다지고 있다. 사무국: 중구 인현동1가 59~15 전화: (2/4)4080·1888

『東書會』 신규파악...80년결성

"재학중 도서관서 인연맺어"

회장은 李學設등문

東書會(회장=李學設·61 법학·대한항공)가 최근 본회가 실시하고 있는 단원東友會재파악과 함께 새로이 소식을 알

려왔다. 同會는 지난 56년~61년사이 에 도서관서 함께 공부한 學友들의 모임으로 지난 80년에 결성돼 친목을 다져오고 있다.

- 회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權永燾(60 생물·대한증권협회) ▲李相純(60 정외·민인쇄株 상무) ▲鄭潤謙(60 법학·수원물산) ▲高章源(61 정외·한강종합개발 부장) ▲孔在德(61 법학·용인문대中 교사) ▲金基鶴(61 경영·국방대학원 교수) ▲尹大敦(61 정외·백만출판사장) ▲李汰沫(61 법학·인정법원 동기소장) ▲李相烈(61 법학·동서출판의원장) ▲崔仲烈(61 정외·문교부 관리과장) ▲李榮燾(61 물리·IBM 기술이사)

城北會 월례회

이덕수등문등 영입

城北同門會(회장=李康壽)는 지난 18일 오후7시 단암동소재 「풍년각」에서 30여명이모인 가운데 월례회를 가졌다.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동문들의 모임인 同會는이번 월례회에서 이덕수(62 법학) 김원정(63 경제)·최창식(71·경영)·김형원(85 산공) 등 새회원을 영입했으며 그간 회원 경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와 공지사항 전달이 있었다. 또한 李二圭(76 수학) 회원은 同會에 30만원을 기금으로 회사했으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로 전 회원이 뜻을 모았다. 연락처: 金榮一(63 정외) 사무국장(923) 3834.

고시지도 위원회

동문에 협조요청

모교 고시지도위원회는 국가고시의 합격률의 일대진기기를 마련하기위하여 강원도 원주시에 서 한시간거리에 위치한 치악산 구룡사 「동락원」을 주지사의 협조로 모교 국가고시반 학생들의 전용, 여름·겨울방학고시 공부방으로 사용하기로 되었다고 발표하고 본會 동문들에게 「관심어린 협조」를 요청



의대신설 東國이여 내일이여

"분출된 「80년 東國」의 저력"

모교 캠퍼스가 들썩이고 있다. 의대 신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가. 이는 「80년 동국 저력의 확인」이요, 「6만동국인 단결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그 가치가 높고 빛나는 것이다. 이제 새장이 열리고 있다. 「人生이 60부터」 인 것처럼 「東國史는 80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해왔다. 고시지도위원회에 따르면 방학중 고시공부방으로 사용될 「동락원」은 총건평50평에 수용인원 20~25명의 규모인데, 겨울철에 대비한 난방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학생들 공부에 필

요한 책, 결산 시설이 되어있지않은반면 자체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동문들이 책·결산구입비(60,000원×20명) 1백20만원을 협조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金鍾遠 박사 화갑논문 헌정"

경제학과, 4백여동문 성황

지난15일 엠배서더서



서 心省 金鍾遠(52경제·모교 부총장·사진) 박사 화갑기념논

문을헌정식을 가졌다. 이날 헌정식에는 4백여명의 동문과 관계인사가 참석하여성황을 이룬가운데 金仁濟(63·모교교수)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黃龍雲박간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鄭奎完(65·용아산업株사장)同會부회장의 논문집 헌정, 崔載久(52 국문·국회의원) 本會 명예회장과 학술원회원인 高承濟박사의 추사, 학생들의 기념품증축에 이어 축하연이 베풀어졌다.

"友情의 자리·結束의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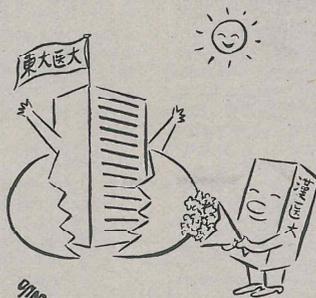
東國人的밤 12월19일에

제14회 축하패수여 送年파티등

호텔「롯데」에서 한·동국인 최대의 잔치로서 友誼와 結束의 광장이 돼온 85년도 「동국인의 밤」 제14회 행사가 오는 12월19일(木) 호텔 롯데에서 열린다. 6만 동국인이 勇猛精進으로 일컫는 관해를 마들하며 내일의 榮光을 다지는 이 큰 잔치에는 국내외를 망라한 동국인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東國愛로 뜨거워 東國의 기개와 지력을 과시하며 내일의 동국을 향한 힘찬 응원을 내건다.

특히 이번「14회 동국인의 밤」은 모교가 내년으로 80주년을 맞게된다는 점과 6萬동국인의 오랜숙원이었던「의대신설」이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고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이날 대제전의 행사내용은 예년과 같이 개최식, 축하패수여, 송년파티, 정기자랑및 행운권추첨등으로 진행되어 신·추매 및 모교·동창회의 더욱 걸작된 유대관계를 과시하게 되며 자세한 세부 프로그램은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를 거쳐 추후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이번「東國인의 밤」에 앞서 본회 사무국에서는 각 단원조직의 모범동국인, 각종 영전·포상·학위수여등 동문제위의 추진을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각 조직이나 동문개시 개신될 제13대 이사추천(자선도환영)도 계속받고 있다.

東友漫評 鄭雲耕



名實相符 綜合대로...

한국 佛敎學會 정기총회

새회장엔 李載昌동문등 선임



한국불교학회는 지난12일 모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새회장을 李載昌(57법학·모교 불교문화원 장·사진) 동문, 부회장은 金三龍(56법학·원광대 부총장) 李智斌(59법학·모교 교육대학원장) 金煥泰(59법학·모교 교내대학장) 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同학회는 지난 73년에 창립 때 11회의 학술발표대회를 가졌으며 학회지 「한국불교학」을 9집까지 발간하여 불교학 발전에 기여해왔다.

大邱테니스會 定總 회장에 具敎贊등문

大邱 동우테니스회는 지난26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회장에 具敎贊(64법학·동부경찰서 경무과장) 동문을 선출하고 부회장에 李鍾基(71 경영)·李喜善(70 식품) 동문, 총무에 崔鍾浩(71 농학) 동문을 유임시켰다.

金鎔貞 (모교기획 조실장) 실장이 밝히는 “佛敎綜合病院 계획”

“학교·재단·동창회·총무원의 단결결과 1,500만 佛子의 지 담은 병원 세워야죠”

이제 명실상부한 종합大學이 된셈이다. 이제 모교는 80년 東國史를 덮고 더 높이 봉비해 갈 것이다. 이 뜻깊은 시기에 모교 東國80년이 되돌아 보아진다. 그리고 민족의 수난기에, 격동하던근세에 젊음을 바쳐 산화해간 수많은 東國의 선열앞에 고개가 숙여진다. 나아가서, 東國이며, 이제 다시 시작이다.

10여개대학 경합벌어

□...우선 전 東國人的 숙원이었던 「의대신설」의 대업을 이루게 된것에 대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자축하고 싶습니다.

→ 그렇습니다. 금번의 「의대신설」은 10여개대학의 경합이라는 어려운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재단·동창회·총무원이 4위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단결의 결과요, 80년 東國의 숨은 지력의 발휘라는 점에서 특히 뜻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86년신입생부터 모집

□...내년부터 경주캠퍼스에서 모집한다고 알고 있는데...
→86년 신입생부터 일단 경주캠퍼스 「분리대소속 의과과」로 50명을 모집합니다. 2년후 본과생들이 생기는 88년부터 정식 의대가 생기는 거지요. 잘 의대와는 물론 분리됩니다. 명실공히 동·서의합의 중심지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병원건립

□...의대가 생겼으니 이제 그에 따른 종합병원 건립문제도 관심거리 일니다.

→과업이 나오는 2년후에는 병원이 있어야지요. 그렇지만 그전에라도 가능합니다. 우선 재원이 문제인데 IBRD 차관의 문제를 고려할수 있었고 학교·재단·동창회·총무원이 힘을 합쳐 거불교적 위원회 구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상은 「우리거세울병원이 동국국민의 영원일뿐 아니라 1,500만 불자들의 영원」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 거 불교적인 힘을 모아 건립해야한다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테면 각 사찰 말

사까지 포함한 1천5백만 불자들 모두의 불신과 성의를 담은 것이지요. 따라서 건립시기는 바로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금운동의 결과에 따라서 말이지요. 기존의 종합병원을 매입할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위치는 연구단계

□...건립위치는 어가될지...
→사실 수도권에는 병원건립이

- 「東國의 저력발휘」 큰 의의
- 내년 신입생부터 50명 모집
- 신·속·매입·여부」는 가변적
- 「거액희사」 뜻 비춘 佛子도

불가능한 상황이지요.정부의 의대 허가도 금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울에 새로 건립은 안되지만 기존의 종합병원을 매입할수는 있지요. 지금 팔겠다고 내놓은 병원도 여럿 있습니다. 의대는 경주에 있지만 대학교도 그런경우가 많듯 병원은 서울에 세울수 있습니다. 가변적입니다만 본과생부터는 올라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경주에도 세울수 있습니다. 그쪽은 그야말로 시간문제 일니다. 그러나 경주에 먼저 세워지더라도 서울에도 반드시 거대

한 양·한의를 합친 종합의료원은 세워질 것입니다.

재원도 큰난관 없을듯

□...재원이 문제일텐데요.
→아까 말했듯 1,500만 불자의 공동의지를 담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명실공히 「불교종합의료원」이 되어야 하니까요. 불교의 잠재적역이 가능한 동원되지 않겠음니까. 총무원장께서도 이사진 취임후 하원에서 의대설립을 「선언」하셨다 시피 재단은 최선을 다할것이고, 재력있는 불자들은 개인적으로 많은 금액을 회사하겠다는 의견도 보았습니다.

부지 정리작업도 끝내

□...구체적인 설립계획, 또는 50명현황을 여쭙는다면...
→우선 최근에 의대를 신설했던 몇개대학의 시행착오를 他山之石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미 그쪽 행정연구팀들과 교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진행정도는 경주에 부지가 마련된 상태고 조감도·설계도도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지요.

반대있지만 모두 기우

□...일각에서 부정적인 반대의견도 있다던데...
→병원위치, 「재정난」에 대한 성급한 예측들이 이유인 모양인데 제 자신은 마스터 플랜이 철저했던 한사람으로 크게 걱정할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절대 요구됩니다.

△뒷글은 11월 4일 총장실에서 동우회보와 동대신문이 공동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편집자註>

本會회장 모교총장 이사장의 의대신설에 즈음한 ‘一言’

“애쓰신 많은 분들께 감사” 각종지원 아끼지 않을터

本會 鄭在哲 회장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켜나 가야 한다는 우리의 과제앞에 의대설립이라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어 동국인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기 그지없으며 아울러 이번 쾌거가 있기까지 애써오신 이사장님과 총장님,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단과 학교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데다가 있는 실정이며 뒤늦은 감도있으나 재단과 학교, 학생, 동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박차를 가한다

“숯불교도 장기모금 계획중”

母校 黃壽永 총장

먼저 의대신설과 관련하여 염두에 두신 재단이사장님과 鄭在哲 총장의장님 그리고 전국불교신도회 朴完一회장님에도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번 의대신설을 계기로 교세확장의 새 면모를 보여야겠습니다. 얼마만큼 내실을 기하느냐에 승패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인 문제는 재단의 지원이 역시 관건이라고 봅니다. 현재 소유한 재단의 교육재산을 動産化하여 활용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난제인 재정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봅니다.

“一化衆生 구도의 첫번째”

재단 吳綠園 이사장

불교의 이념하에 설립한 본 대학에 늦은감은 있지만, 의과대학을 설치한것은 국민의료시혜의 확대와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본대학의 시급한 과제로 판단, 추진하였으며, 종당과대학, 동창회, 신도회등 전 東國의 단합된 힘의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의 시혜는 불교의 근본이념인 一化衆生의 구도에 가장 중요한 여건입니다. 본학원에서는 의과대학을 추진 설립할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과 협력하여 「불교종합병원」

를 앞장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동창회에서라도 이제껏 다져온 단결과 협동으로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는대로 의대지원에 성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의대설립으로 말미암아 모교가 이루어 온 80년 찬연한 역사적 터전위에 全동국인은 물론이며 1천5백만 불자 및 지지역사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동국발전의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관심이 집중된 「불교종합병원」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에 세우겠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의 매입에 대해서도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언제든 충분한용이 있을것입니다.

「불교종합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으로는 약 3백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비용이 모자라다면 동문, 교직원, 화상, 나아가서는 전불교도들이 원했던 일이니만큼 장기모금운동이더도 전개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번 의대신설에 대하여 다각도로 힘써주신 여러 동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기밀에 관한 사항이어서 밝히기 곤란하지만, 신규투자하여 설립하는것과 아울러 기존병원의 인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을 비롯하여 협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慶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祝

- | | | | | | | | | | | | | | | | | | | | |
|------|------|------|------|------|------|------|------|------|------|------|------|------|------|------|------|------|------|------|------|
| 國會議員 |
| 明 | 李 | 梁 | 李 | 金 | 李 | 趙 | 朴 | 朴 | 辛 | 金 | 張 | 愼 | 朴 | 金 | 李 | 崔 | 鄭 | | |
| 華 | 範 | 昶 | 榮 | 容 | 尙 | 炳 | 旺 | 珪 | 敏 | 榮 | 忠 | 順 | 翊 | 東 | 英 | 載 | 在 | | |
| 燮 | 俊 | 植 | 一 | 午 | 玫 | 鳳 | 植 | 植 | 善 | 龜 | 準 | 範 | 柱 | 英 | 駿 | 九 | 哲 | | |

과포/의대설립/80년의문
 턱에 선 東國의 새 장을
 여는통쾌한 일이었다. 이제
 새로운시작을 해야한다. 명
 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실
 질적인 변신, 나아가서는한
 국제일의 전통사학으로 온
 슯을할 주춧돌을 놓은 것
 이다. 정제되었던 학교발전
 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이
 번 의대설립을 계기로 각
 계 동국인들의 소리를 들
 어본다. <편집자註>

각계의 소리

부속병원 설립이시금

金素金 (前모교 총장)

내가 총장으로 재직할때 추
 진했었으나 성취되지 못했던일
 이 이루어져 대단히 경하스럽
 다. 경주에는 큰 병원이 없었
 니 부속병원의 설립이 하루빨
 리 이루어 졌으면 한다. 또한
 서울의 환자가 경주까지 갈수
 가 없으니 서울에도 큰 병원
 을 세워 경주와 서로 연계를
 맺어야할 것으로 본다.

적극홍보로 변혁시도

손창규교수 (경주 조정학과)

무척이나 기쁩니다. 東國80년
 사의 숙원을 풀었고 정제되었
 던 학교발전이 박차를 가할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경주대
 설립이후 최대의 패거리 아니
 할수 없읍니다. 학교당국에서는
 홍보를 통해 우수학생을 유치
 해 변혁을 시도해야 할 때입
 니다.

학문적연계성 가져야

尹泰汝 (경주 부속한방병원장)

東西의학의 학문의 전당이
 이루어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학문의 상호연
 계성을 가지고 협력과 조화로
 교육, 연구및 봉사하여 충
 실한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본
 다. 이번 의과대학 신설은 전
 대학의 발전에 새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朴在憲 (경주 학생생활과장)

우리 대학의 오랜 바램의 하
 나였던 의과대학 신설은 전 동
 국인의 기쁨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
 러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기존
 한의과대학과 조화를 이루어 대

80년 숙원 醫科大學 신설

학발전의 기쁨이 되었으면 하
 는 마음 간절하다.

병원은 서울에 세워야

나은주 (국문과)

제도적 규제로 의대는 경주
 에 신설되나 병원은 서울에 세
 워졌으면 한다.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게 실
 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
 이번기회에 재단이 발전고 나
 서 그동안의 불신을 해소시켜

이나 장기적 안목에서의 중단을
 모금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의
 대신설로 복지문제, 교원처우개
 선 장학 면학분위기가 위축
 되어서는 안된다. 범 불교신도
 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따라야겠다.

실질적인 면 치중해야

김형민 (물리학과)

한의대처럼 형식적이고 문
 만 화려한 실속없고 문제

80년 모교의 숙원사업이었던
 의과대학이 신설됨으로 이제
 모교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
 로서의 면모를 갖추게되었다.
 국가인력수급 계획의 하나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통제되고
 이리 급속조성되고 있는 시
 기에, 그동안 병원건물 부재 등

기획취재

을 이유로 인가를 미루어 오
 년 10월부로부터 12월30일 인
 가를 받아인 일은 무척 값진 일
 이라 하겠다.

내년부터 신입생모집

이번에 인가받은 의과대학은
 경주캠퍼스에 신설하게 되며86
 하년도부터 이예과 신입생 (60
 명)을 모집하는 동시에 본과
 이전에 부속병원을 세우게 된
 다. 이미 학교당국에서는 2년
 전부터 의대설립과 부속병원건

기를 맞아 재학생·동문등 8
 만 동국인이 일치단결하여 모
 교와 의대의 발전에 노력하고
 더 나아가 여타 대학병원을능
 가하는 불교종합병원(가칭)의건
 립에 총력을 기울여야하겠다.

현재 학교당국에서는 중단을
 과 협력하여 불교종합병원건
 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대
 시에 병원을 설치할 계획등다
 스타플랜을 갖고있으나, 예산과
 병원부지등 문제와 의과대학
 립에 따른 강의실, 교수진 확
 보등 많은 문제가산재해있다.

강의동, 시공 단계에

기획실의 발표에 따르면『경
 주캠퍼스에 의과대학 강의동설
 치와 부지선정작업이 마무리되
 어 현재 건축업자와 시공에 따
 른 입찰계획을 타진중이며 강
 의동은 인문사학화관된 2천3
 백여평의 부지위에 약 17억
 정도를 들여 최신식 5층건물
 로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각계 (동문·재학생
 등)에서는 『부속병원을 본교에
 건립하여 예과를 경주에서 마
 치고 서울에서 본과의 실질실
 습등을 하는 방안이 일반시민
 에 대한 의료혜택등 현실적으
 로 보다많은 이점을 주며 대
 의적인 홍보효과도 더 나올

부속병원엔 서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주었으면 한다.

佛敎건학이념의 구현

金仁德 교수 (불교학과)

축하해야할 경사이다. 무엇보다
 佛敎를 건학이념으로 하
 는 본교가 중생구원에 적극성
 을 보이게 될 계기가 중생구
 원에 적극성을 보이게 될 계
 기라 생각되기에 반가운 소식
 이 아닐수 없다. 곧이어 건립
 될 부속병원의 의료혜택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뜻있는 일의
 기초가 내려지는 셈이다.

중단모금 선행되어야

許天澤교수 (영문과)

의대신설은 무척 바람직한일

점란 드러내는 것이 아닌 좀
 더 실질적인 면에 치중해야
 될 것이다. 비로소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東國80년史의 일대혁신

황원만 (경주 한의과)

동국80년사에 일대 혁신이
 아닐수 없다. 비록캠퍼스 설
 립이 하나의 시금석이었다면
 이번 의대신설은 도약을 향
 한 첫시호이다. 특히 漢·洋方
 을 병행하면서 인술의 장을
 펼칠수 있게되어 더욱 환영
 할 일이다. 상호보완적 기
 능이 되기위한 교수·학생들의새
 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문순>

립에 따른 장단기 계획을 세
 우고 꾸준히 노력, 오늘의 결
 과를 얻었다.

모교는 1906년 進善學校로개
 교한 이래 佛敎종립학교로서선
 구적 역할과 東國文學의 전통
 등 교세를 펼쳐 왔으나 70년
 대 이후 다소 침체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침체의요
 인으로 우선 의과대학의 부재
 를 들 수 있겠다. 그만큼 의
 대의 유무는 교세를 상당한비
 중을 가져왔던 것이 현실이었
 다.

이제 내년으로 개교80주년을
 맞는 모교로서는 의대신설을계
 기로 부진했던 과거를 청산하
 고 東國大學校의 전통에 걸맞
 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
 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전

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과감한 투자있어야

모교당국으로서서는 세부적 장
 단기 계획을 세워 과감한 투
 자와 함께 홍보에 힘써 의대
 및 모교의 발전에 전력하고, 교
 수진의 확보와 함께 간호학과,
 약학과등 관련학과와 설치가능
 인종히 검토하여야할 것이다.

이미 모교는 한의과 대학과
 부속한방병원을 갖고 있으며
 이번 (양) 의과대학의 설립으로
 학문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꾀
 하고, 東西의학의 중심부로서
 전통적 불교이념을 펼칠 불교
 종합병원의 건립에 전력을 다
 해, 중비동국의 계기로 삼아
 동국총흥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京>

재정·교원확보등 문제남아 이미지부각 전기맞아 漢·洋方 학문적연계성 가져야

祝 東國大學校 醫科大學 新設

"동국인을 위한 동국인의 병원"

- 최신 의료 시설
- 정예 의료진
- 최선의 시술
- 신속하고 알뜰한 봉사

종합병원 江南高麗病院

理事長 金濟局 (동국대총동회 상무이사)
 院長 金炳昱 (의학박사·산부인과전문의)

진 료 과 목		
일반내과	신경외과	심전도실
일반외과	피부과	X선실
소아과	치과	신체검사실
산부인과	임상병리실	뇌파검사실
정형외과	물리치료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6동 36-83

TEL : (代) 882-1400 885-4466
 877-4466 877-6644

「韓國詩人研究」퍼내

金海星 동문

金海星 (79분과) 서울 女大 교수·本名:金顯鎭 동문은 그 간의 詩批 評 活 動 을 토대로 現代 韓 國 詩



人 研究」를 펴냈다. 이 研究書에서 金동문은 詩 史에 남은 詩人들의 작품 을 선별, 詩世界와 思想을 규명했 으며, 시인들의 성장과정, 사상, 생활 주변에까지 파고들어 작품 과의 인과관계를 분석·비판했 다.

金동문은 지난 80년 「물동이 思戀」등 詩55편을 모아 詩集 「九津浦」를 낸바있으며, 「韓 國 現代詩에 나타난 佛敎思想 研究」란 논문으로 79년 8월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女大 신문사 주간

여행대리점업종 위원장

安重五 동문

安重五(65영문 나라航空株대 표이사)동문은 지난 11월 11일 있는 한국관광협회 여행대리점업종 위 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취임 선출 됐 다.

모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기 도 한 안동문은 본회이사회활동 중이며, 「동국인의 밤」행사나본 회 美洲순방등 행사 때마다 환 공권을 제공하는등 평소 회발 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다.

東園文學賞본상 수상

吳學榮 동문

吳學榮 (63국문) 동문은 제 2회 東園 文學賞 본 상 수상자 가로 선정 됐다. 이 번 수상작 은 소설「마 랍으로 떠난 여자」이며 시상 식은 11월 6일 출판회관강당에 서 있게된다.

吳동문은 73년 동아일보에희 곡「꽃달밤」이 당선, 단단에 발 을 들인 이래, 대한민국 문화

상 아문문학부문 수상 (창작집 「물에서 나온 새」83년)등 활 발한 창작활동을 벌여왔으며희 곡집「꽃과 십자가」소설집「짐의 소리」이론서「희곡론」등 많은 저서가 있다.

83년에는 논문「開化期의곡에 나타난 사회사상」으로 모교대학 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던 吳 동문은 지난해 문인협회 상임 이사로 피선 문예의 살림전반 을 총괄하고 있다.

(株)금성사 전무이사로

孫基洛 동문

孫基洛(65경제·본회 이사) 동문은 (株) 럭키 전무이사에서 (株) 금성사 전무이사로 전임 했 다.

孫동문은 공인회계사로 금성 사 관리본부장·럭키財經이사· 럭키財經상무·럭키전무이사등을 역임하는등 졸업후 계속 럭키 금성 (株)에서 뼈가 굵은 경 리원이며 현재 본회 이사로 활 약중.

「처용의 웃음소리」상연

申相星 동문

申相星 (70 국문· 소설가·유 도대교수) 동문의 소 설「處容의 웃음소리」가 연극으 로 무대에 올려진다.

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 단한 이래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온 申동문의 대표작인 이 작 품은 극단「서울무대」의 제14 회공연작품으로 이듬해 연출로 11월 8~13일(3시반·7시반) 까지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공 연된다.

榮進轉補

▲李相元(69영문) —일도침문 자율연과장에서 차관국 공판관 리과장으로. ▲張甲洙(64경제) —대한통문 북포지점장으로. 서울외국 부차 장 총주지점장을 역임. 북포 (2)2414. ▲辛慶樹(70경행·경감) —북 부서 형사계장에서 서초경찰서 형사계장으로. ▲李承元(71경의) —등양시엔

대 부출판소에서 서울본사지 재과장으로. (723) 9031.

▲金鍾元(71경행) —치안본부 의사와 김포본실에서 치안본부 수사과 국제협사계로.

▲李東熙(72경영) —호남정유 (株) 본사영업부에서 대전영업 소 판매과장으로. (253) 5211~ 5.

▲高龍圭(74경의) —환인제약 관리본부장에서 명인제약 (주) 영업이사 영진.

▲朴榮祿(75경영) —한국자용 차보림 (주) 총무지점에서 성동 지점 보산2과장으로.

<제일은행>

▲이상경 (66영문) —총로지 점 차장에서 저축부 저축기획 과장으로.

▲尹相信 (68경제) —성수동 지점 차장에서 심사2부 심사 역으로.

▲河基俊 (68상학) —충무로 지점 차장에서 성수동지점 차 장으로.

▲林盛峯 (68경제) —이촌동 지점 대리에서 신탄동지점 대 리로.

▲千正權 (71법학) —네아동 지점 대리에서 덕수지점 차장 으로.

▲朴光隣 (71경영) —성동지 점 차장에서 을지로지점 차장 으로.

▲具本旭 (71경영) —저축부 대리에서 남대문지점 대리로.

▲沈大錫 (79경원) —심사2 부 부부장에서 장위동간이예급 취급소장으로.

▲高舜彬 (79경정) —남산지 점에서 수원시지점으로.

▲李道煥(82주역) —상동지점 에서 본점영업부

▲崔仁會(82경정) —충무로지 점에서 남대문지점으로

차관수(82경의) —상사동지점 에서 충무로지점으로

▲梁基炯(82경의) —화양동지 점에서 충무로지점으로

▲朴榮權(82경경) —명동지점 에서 논현동 지점으로

▲洪淳英(84경원) —합정동지 점에서 밤대동지점으로

結 婚

▲金永周 (52경제·在美) —11 월 2일 정오 혜화동성당서 長 男희족.

▲安燦淳(59정지·株금강전무이 사) —10월29일오.2시 천주교

반포교회에서 1녀희족.

▲朴昇奎 (77법학·변호사) — 10월26일오.2시 대구고려예식 장에서 희족

▲孫秉國 (79국문) —10월 26 일오.2시한 신사동 원암예식 장에서 희족.

▲李昌雨 (70사계) —11월 2 일오.2시 퇴계로 행복예식장 서 희족

▲姜錫珪 (85일학) —10월 26 일오.2시 증심교회서 희족

回 甲

▲申國柱 (48예전·모교 법정 대학장·본회이사) —오는 11월 9일 하오5시 롯데호텔 크리 스타볼룸(2층)에서 화갑기념 논총 헌정식을 갖는다.

▲柳振昌 (49예전·일광도건株 회장·본회부회장) —지난 10월 31일(음.9월18일) 화갑을 맞았

다. ▲徐楠春 (52국문 경기대 교 수) —경기대체육관에서 2일 오 후5시 후라들로부터 화갑기념 논총을 헌정받았다.

訃 音

▲梁燦奎 (52국문·세종대학교 수) —지난 10월10일 수환으로 별세.

▲金珠鎭(57경제·서울신문사 편집위원) —11월 4일 상오1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72 북악맨션 7층 202호 자택서 별세.

발인은 6일 상오 10시.

▲姜汝松(58국문·상명여고교 장) —동문=10월11일 별세. 13일 오전10시 상명여고 학교장으로 영결식.

▲백순서(經院在·株삼한공부 사장) —지난 10월 6일 모친상.

경찰계동문 7명 勳·褒章받아

李鍾國 동문등

“경찰의 날”맞아

李鍾國 (경무관)동문은 경찰 간부 11기생으로 81년 경무관 에 승진한뒤 서울 鎭路, 龍山 경찰서장을 비롯, 治安本部감 계장등 요직을 거쳤는데 83년 대령포장을 받게됐다. 現在 本部의사과장, 本會理事.

白亨祚 (경무관)동문은 21일 있는 治安本部. 형사과장으로 근무. 權重慶(총경) 동문은 충북도 경무부계장· 충주서경비과장을 거쳐 現在 진전경찰서장으로 있다. 本會 理事로서도 활약중.

玄商鍾 (총경) 동문은 제주도 경검비·통신과장, 정보과장등을 거쳐 서귀포경찰서장을 역 임했다. 現在 제주도경근무중.

全判浩 (경정) 동문은 동대문 경찰서에서 최근 서대문경찰서 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南澤善 (경정) 동문은 내부부 치안본부, 동부경찰서 대공과장 등을 거쳐 現在 영등포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있다. 77년 대령명 표창

李永根 (치안관) 동문은 경찰 간부11기생으로 대구경찰과장 으 (434) 4036

▲회장—金大略 (67경제) 자재 부차장 (720) 7111▲간사—張敏 洙(77경정) 종합관리부과장(720) 7211

▲총무—李忠模(60법학) 주임 교사 (434) 4036

▲인장총교 ▲회장—陳允旭(49분과) 인장 중 교장 (363) 2907 ▲간사— 任在彬(63경제) 인창중 교사 (363) 2907

▲동대부총 ▲회장—陳宗澤(62영문) 교사 (245) 4112▲총무—郭性奎 (69 물리) 과학위원 (245) 4112

▲진선여교 ▲회장—朴泰遠 (69국문) 교사 (567) 7839▲간사—安載根 (73 과교) 교사 (567) 7839

지부 재파악에 계속적인 협조를...

◇全北支部 ▲회장—金三龍(56분과) 國光 大 부총장 이리 (52) 6111▲총 무—全容夏 (63상과) 전주연초체 조침전주 (4) 5111

◇이리시동문회

全北등 26개지부 1 차파악

▲회장—洪元均(68정지) 미아 상사대포(988)2933 ▲총무—全炳麗(68경제) (株)대우 총무이 사(755)2404

▲회장—黃福東(55국문) 한국 문인협회 부이사장 (533)0083 ▲간사—韓壽洙(84국문) 의협신 보 편집국(793)8701

▲회장—李仁植 (61법학) 남부 소방서장(593)0008 ▲총무—金永壽(63법학) 변화동일사문위원 (421)3366

▲회장—韓萬濟(63경영) 양지 사대교(266)9874 ▲경영대학원敎友會

▲회장—李鍾泰(78경석) 신흥 실전 무역과교수(555)7685▲총 무—崔昌昌(78경석) 삼지대학회 체과교수 원주 (42) 1121

▲회장—黃龍雲(54경제) 부산 은행장 부산 (67)3151 ▲사무국 장—申寬浩(73경제) 동대신문사 편집국장(287)8577

▲회장—李錫煥(59정지) 대검찰청 비서관(771)23 ▲간사—黃來烈(78체교) 모교 생 활과수원 (275)9200

▲회장—朴鍾旭(65경영) 여의 도지점 차장 (783)8031~5▲간 사—黃明秀(81선정) 본점 전산 부 대리 (771)50 交511

▲회장—李正路(62정지) 상무 이사 (782)1432 ▲총무—河珍壽

(65경의) 등복부차장 (782)2437 ▲총무—李錫煥(65경제) 과주 지부장 판주 (55) 6722~3 ▲간사—정종일(84경제) (793) 9310

▲회장—李在寧(62경제) 신촌지점장 ▲총무—鄭在雄 (71경 영) 본점 영업부 차장 (771)40 交373

▲회장—李錫雨(57일학) 입일 시험장 목재가공과 (966)8961~ 5 交567▲총무—金善經 (75일 학) 입일시험장 기획과(966)9917

▲회장—金龍浩(56법학) 중앙 보급사무소 총무과장▲총무—李志順(61법학) 교통공무원교육원 교수부 주임교관 (793) 7821

▲회장—李錫煥(68경제) 지도 부차장 (783) 0061▲간사—沈永 日(83법학) 부속실(783) 0061

▲강원선원 (주) ▲회장—金大略 (67경제) 자재 부차장 (720) 7111▲간사—張敏 洙(77경정) 종합관리부과장(720) 7211

▲총무—李忠模(60법학) 주임 교사 (434) 4036

▲인장총교 ▲회장—陳允旭(49분과) 인장 중 교장 (363) 2907 ▲간사— 任在彬(63경제) 인창중 교사 (363) 2907

▲동대부총 ▲회장—陳宗澤(62영문) 교사 (245) 4112▲총무—郭性奎 (69 물리) 과학위원 (245) 4112

▲진선여교 ▲회장—朴泰遠 (69국문) 교사 (567) 7839▲간사—安載根 (73 과교) 교사 (567) 7839



支部消息

영남·충남지구 동문 체육대회 盛了

10월20일 "서라벌과 한밭에 東國愛 만발"

"嶺南7개지부" 大邱支部주최

「제3회 영남 지구동문체육대회」가 지난10월20일 경주캠퍼스에서 7개지부 3백20여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대구지부(회장=全素成·57경제) 주최로 개최되어 경주지부(회장=朴廣度·65불교)포항지부(회장=金顯昊·60영문)김천지부(회장=李憲永·43불교)와 저녁출진한 부산지부(회장=金容彰·54법학)를 비롯, 포항제철동문회, 경주대학 재직동문회등이 참가하여 축구, 배구, 테니스, 럭비, 공갈리기, 줄다리기등 5개 종류의 경기를 펼쳐 경북·대구지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체육대회를 마친 동문과 가족들은 휴게실에서 밴드를 초청하여 흥겨운 여흥과 함께 노래를 가졌으며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각 종목별 우승은 다음과 같다. **▲종합우승=경북대구지부 ▲준우승=경주대학재직 동문회 ▲축구·테니스=경주대학 재직동문회 ▲배구=포항지부 ▲럭비공갈리기=줄다리기=경북대구 지부**

한편 이날 행사에는 金仁鴻 경주캠퍼스 부총장이 체육대회기와 을료수, 주류, 행운상품1점등을, 全素成大대구지부 회장이



충남지부 동문들이 제2회 동국인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행사용 대형텐트 2조와 금일봉을 기증한것을 비롯해 박진희(株경북광유) 고문, 하영태(株유신직물)박달식(株대구위생)홍기익(신우상호신용금고) 부회장, 오남수(단리장성) 감사등70여명의 동문들이 금일봉을 회사하기도 하였다.

내년에 있을 제4회 체육대회는 부산지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 회장=全素成(경제) 부회장=朴廣度(불교) 대의원=김기철(영문) 이영태(불교) 이영태(불교) 이영태(불교)

釋光玉 동문

한국 승려로 中共 첫방문



한국인 승려로서는 최초로中共을 방문했던 비구니 釋光玉(72 불교·캐나다지부) 스님이 지난10월16일 캐나다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에 들러 본회사무국을 방문했다.

光玉스님은 중공불교성지순례단의 일원으로 지난 9월1일 홍콩을 떠나 廣州(大格寺)洛陽

10%가 복원되고 있으나 그도「사회주의에 이익이 될경우」에 한해 허락, 사찰의 운영관리권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韓族집단지부주신인 吉林省지역도방문했던光玉스님은,「거기서 만난 한인들은 어린아이부터노

中共佛敎 성지순례단 일원으로 吉林省 한인들 고국소식 밝아 "加지부 흥법원서 포교활동중"

(小佛寺)등 중공각지의 명찰들을 순례하고, 남북불교계의 지도급 인사들을 만나 중공불교의 현황을 알아보고 돌아왔는데, 스님이 따르면 중공의 사찰들은 文革기간에 대부분 파괴·반파괴되었으며 현재 중공당국이 관광객유치등을 위해 사찰의 복원과 불교의식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해 그중

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고, 한국교의 방송을 듣고 있어 한국노래도 잘들었으며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서도 잘알고 있었다고 전언.

光玉스님은 캐나다 흥법원에서 포교하고 있는데 本會·加지부의 유대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24일 캐나다로출국.

단합된면모과시 내년엔가족동반

「제2회 忠南 총남지부 동문체육대회」가 지난10월20일 대전 忠南대학교에서 朴鍾允(59 경제·국제특수금속대표)회장을 비롯, 60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李在福(43 해전·보문고교장)

명예회장, 任千濤(54국문)前회장 등 대다수 회원들이 참가한 이날 체육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경·백 안탕으로 편을나눠 축구, 배구, 2인3각, 공갈리기, 줄다리기등의 경기를 가졌다.

경기를 마친후 식사를 겸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동문 상

호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져 단합된 면모를 과시했다.

한편 同지부는 다음대회부터는 가족동반으로 체육대회를 가져 더욱 뜻있는 자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동문을 모두에게 기념품과 기념타월등을 전달하기도.

회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방문 수납생 3명결정..."



본회 사무국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회비수납에 적극성을 띠어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의대가 신설되는등 날로 일취월장하는 모교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기위해 모교에 재학생인 후배들을 선반, 아르바이트용역을 주여 회비수납에 활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4號 3명에 자세히 보도) 의대신설, 얼마나 바라던 일입니다. 이제는 全東國인이 대동단결해 그박을 가꾸고 키워나가야만 한다는 절연 興論이 있을 수 없을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회비(1년에 1만원)가 종창외관이 되고 후배들의 장학금이 되고 내일의 東國大學校가 됩니다. 同門여러분의 誠意와 동참을 믿습니다.

- 다음은 본회가 선발한 회비방문수납 아르바이트생 후보들입니다.
- △朴鍾賢=산인공학과 3년
 - △姜秉秀=영문학과 1년
 - △李鎭濟=전자계산학과 1년

會費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1만원...회보제자·장학기금·사무국운영에요긴

(단위 :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常務理事會費 ▲黃龍雲(54경제)=20 ◇理事會費 ▲김종현(52경제)=10 ▲김재홍(60경제)=5 ▲고문석(52경제)=5 ▲최홍호(72경제)=2 ▲정민준(54국문)=1 ▲정영민(84경제)=1 ▲이상훈(57법학)=6 ◇年會費 ▲조지환(58경제)=1 ▲강신진(77법원)=1 ▲정순봉(59법학)=1 ▲이상현(68법학)=2 ▲이종렬(83회계)=1 ▲심성호(85영문)=1 ▲김정택(65법정)=1 ▲박상진(77법원)=1 ▲강병문(62법학)=1 ▲임유현(84경제)=1 ▲강성택(73경제)=1 ▲이승열(71법학)=1 ▲홍성제(80법학)=1 ▲이훈재(49사학)=1 ▲김현수(85불리)=1 ▲김순용(82법학)=2 ▲구병문(70상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진희(52경제)=1 ▲김경수(62법학)=1 ▲김철호(79법학)=1 ▲신계선(82법원)=1 ▲시중현(84국문)=1 ▲경규명(67경제)=1 ▲박성재(67법학)=1 ▲심갑식(62경제)=1 ▲변해룡(80법학)=1 ▲김기환(83법학)=1 ▲김충남(70법학)=1 ▲최영문(78경제)=1 ▲이창민(84회계)=1 ▲최교훈(83법학)=1 ▲박성환(78법학)=1 ▲박종식(79법학)=1 ▲윤재중(77경제)=1 ▲김경률(79경제)=1 ▲김영태(83법학)=1 ▲유용진(82경제)=1 ▲정규삼(84부역)=1 ▲김시중(82법학)=1 ▲오철구(53정치)=1 ▲김덕수()=1 ▲이상란(82법학)=1 ▲나후룡(52국문)=1 ▲반성근(71법원)=1 ▲이성길(70법학)=1 ▲이정훈()=1 ▲홍성표(82경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영수(78경제)=1 ▲이은감(74경제)=1 ▲김진일(76법학)=1 ▲김한우(75경제)=1 ▲권관용(79경제)=1 ▲이진오(79도독)=1 ▲홍익주(80전자)=1 ▲정순태(82법학)=1 ▲김광준(83경제)=1 ▲김준상(75법학)=1 ▲윤효상(66농학)=1 ▲권선일(63법학)=1 ▲정재용(80경제)=1 ▲이영만(69경제)=1 ▲김영준(70법학)=1 ▲김재경(74부역)=1 ▲이영안(69경제)=1 ▲김진기(82전자)=1 ▲박현직(80법학)=1 ▲이재홍(77경제)=1 ▲황명수(81전자)=1 ▲황재명(80전자)=1 ▲박희수(84사학)=1 ▲정문조()=1 ▲윤덕규(76경제)=1 ▲이성길(78경제)=1 ▲유근영(77전기)=1 ▲김홍일(81회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석원(80법학)=1 ▲김종욱(72경제)=1 ▲정재홍(71경제)=1 ▲김은호(82법학)=1 ▲신교식(79경제)=1 ▲김교(69경제)=1 ▲황선도(82회계)=1 ▲안중내(77법학)=1 ▲홍성용(78법학)=1 ▲이광우(74회계)=1 ▲오영일(66상학)=1 ▲정병문(78법학)=1 ▲최병대(68사학)=1 ▲이이규(76수학)=1 ▲김철호(77회계)=1 ▲박준서(72경제)=1 ▲염후근(85경제)=1 ▲민승화(79법학)=1 ▲박원식(74사학)=1 ◇團體會費 ▲한국보험공사동문회(회정=김승제)=5 ▲광양군동우회(회정=안병원)=5 ▲농어촌개발공사동문회(회정=이주형)=5 ▲동우회104號 幹事료=20 ▲" 105號" =60
--	--	---	---

韓·中·日 불교 학술 회의

8, 9일 佛敎文化연구원 주최

모교의 佛敎文化研究院(원장=李載昌교수) 주최「韓·中·日佛敎學術會議」가 오는 8, 9일 양일간 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국불교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82년부터 해마다 열려온 同 學術회의는 82년 「華嚴思想의 한국적 전개」 83년 「法華·天台思想의 한국적 전개」 84년 「禪思想의 한국적 전개」에 이어 「淨土思想의 한국적 전개」를 주제로 주제는논문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된다.

신임 공과대학장 金翔圭(토공과) 교수

母校당곡은 지난5일자로 金翔圭(토목공학과) 교수를 신임 공과대학장에 임명했다.

金直泰(화공과) 전임 학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金翔圭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33년 경북 금릉생 ▲57년 육사卒 ▲61년 서울대 토목공과과교수 ▲77년 8월 9일 모교교수 ▲83년 교무처장역임.

新羅文化史포지움 신라문화연구회

모교 경주캠퍼스 新羅文化 연구소(소장=金甲問교수) 주최 「제5회 新羅文化심포지움」이 지난1일 「新羅三國統一의 재검토」란 주제로 14명의 발표자 및 토론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문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민족사의 증해를 이룬 신라의 통일문제, 思想史, 佛敎史, 考古美術史 등 제반유산 연구를 통해 민족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심포지움은 1부에서 金相鉉(문리대) 교수의 「三國統一의 精神的基盤」 申澄植(이화여대) 교수의 「三國統一前後의 대외관계」 邊大燮(서울대) 교수의 「三國統一의 民族史的意味」 등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金煥泰(불교대) 교수와 徐榮洙(단국대)

교수, 李基白(한림대) 교수 등 총11명의 교수들이 참가,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벌였다.

在美필립·우박사 『도서1만권』기증

지난81년 교환교수로 모교에서 경제학강의를 한 바 있는 미국의 필립·우 박사가 모교 도서관에 1만여권의 도서를

제18대 총학생회 선거 29일 후보자등록 마감

제18대 총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일정이 마련되어 지난 29일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유세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를 위해 지난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 운영위원 20명과 단과대 대표10명으로 구성, 발족되어왔으며 후보 등록 투표 개표등 제반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후보등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직임 부총학생회장 임후보자

- ▲노재홍(철학 3) ·오현진(아간 연문3) ▲황찬익(국문3) ·우희재(정의3) ▲송용업(법학3) ·이방일(수교3) ▲이제근(정의3) ·전정일(아간 전산3)

총학생회직임 임후보자

- ▲배정미(국사교3) ▲남미영(농생3)

「학생의날」 기념 강연회등 활발히

「학생의날」 기념행사가 총학생회와 각단과대 주최로 10월 28일부터 1주간 불상앞등지에서 활발히 열렸다.

올해로 학생의날 부활 2년째를 맞아 그날의 학생정신을 기리기위해 모교에서는 지난28

기중, 현재 서울세대에 통관철차를 밟고있다.

이번에 기증받게된 1만여권의 도서는 각 분야별 원서들로 알려졌는데 필립·우 박사는 지난 83년에도 3천여권의 도서를 기증한 바 있다.

CPA·行試 2차 모교생 2명합격

바이철(85경영·大院在) 동문과 남기만(아간강과 무역4) 군이 각각 제20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과 제29회 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에 합격했다.

박동문은 2년간의 연수기간을 거쳐 최종3차시험에 응시하게되며 남군은 오는14일 정부종합시험 대외실에서 실시되는 3차시험을 남겨놓고있다.



역사인물법정 「요청과 서경천도」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모의재판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의 올바른 인식을 꾀한 사우회 주최 「제5회 역사인물 법정」이 「요청과 서경천도」라는 주제로 지난30일 모교중앙강당에서 열렸다.

「요청과 서경천도」를 피고로 개정한 이번 법정에서 검사측은 「왕실과 민중을 기만하고, 민족의 역사발전을 저해시킨 죄」로 기소하자, 이에대한 변호사의 변론과 검사의 논고, 김부식등 증인신문에 이어 검사측의 최후변화가 있었으며, 최후변론에서 변호사측은 「역사의 사대주의속에서 민족자주성

회복에 노력하고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들어 변론.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피고가 민족정신을 고수하고자 한 자주의식은 인정하나, 그 시대적 한계성을 무시한 이상론과 폭력적 군사행동을 경계하면서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

근海선생詩碑건립 총학서 적극추진

모교의 총 학생회 학술부는 근海선생 詩碑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비건립을 위한 범공적 운동」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새 주소를 알려주세요

※다음은 본회가 파인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會報를 못 받아 보시는 동문께서는 연락을주시면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 ▲金鶴松(53경계) = 그레이스 무역공사 대포 중구충무로2가 61~8 시사빌딩 302호
- ▲李允興(61법학) = 대림산업(주) 오금아파트 현장소장
- ▲金東益(63정치) = 서대문구 효은 2동 11~79 (388) 7232
- ▲김원정(63경제) = 성북구보문동1가 147~1(923) 3883
- ▲김기일(64연영) = 용산구이태원동 36~35 (797) 8978
- ▲김형록(65 경상) = 스포츠서울 광고국차장
- ▲최창식(71경영) = 강동구고덕공무원아파트 811~108(470) 0237
- ▲洪順云(77 문석) =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12동 104호
- ▲李政東(80공방) = 성북구정릉1동 123번지 스키아파트맨션 7층 301호(912) 1227
- ▲南基鎭(57국문) = (필명: 南九峰) 삼성물산(주)기회초사실
- ▲劉判珠(61법) = 부산 문화반송국면성극장
- ▲宋寬鎭(62법학) = 한국 주택은행 부평지점장
- ▲愼漢宰(85국문) = 조선 맥주(주)삼부이사
- ▲車英鎭(66사하) = 한국전력공사 경비처장 (562) 9722
- ▲金大圓(70경행) = 성북구 성북동4가323 (94) 9572 치안본부 기획계장
- ▲金世基(71정치) = 동작구 상도1동 남영연립621호
- ▲金善政(76법정) = 경북 경주

시동천동동국대교원아파트610호 ▲安炳進(79공경) =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대우아파트 58~203호 (53) 3035 한국생산성본부 (538) 0180

▲李日龍(81정외) = 경기도 광주군·읍 광주체육구 사서함1호 정훈과장

▲金源(83법학) = 부천시송내동 590-9 학교법정공사생보심의부

▲朴鍾珍(85농학) = 경북 경주시 배동930 1 한국농업연구재단본부 애지동원

▲元鍾賢(85농학) = 上 同

▲宋志基(85영문) 日本 東京都 杉並區 高圓寺 北2-26-1 2 甲信館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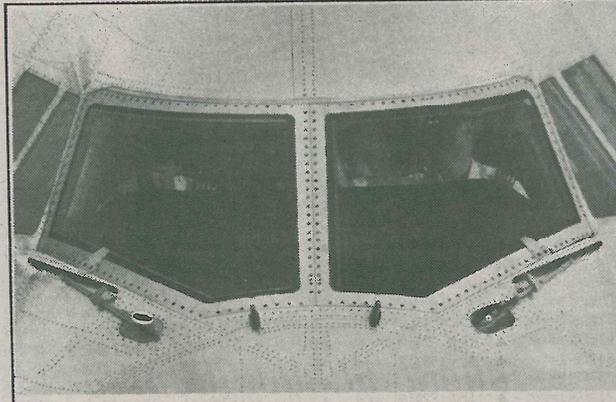
▲金亨垣(85산공) = 성북구정릉4동 234-15

▲鄭天燾(74무역) = 경기은행 인사부. 인천시중구사동9-1. (72) 5151-70

▲尹恒鎭(80전산) = 삼성물산(주)시범남연부

▲南秉祐(82전산) = 삼성물산(주)경영정보실

▲朴三彩(84국문) =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한광여고



미국 3대도시로 눈소통항공편 운항

미국으로 여행하신데 노스웨스트 항공을 타시면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많습니니다. 첫째, 노스웨스트 항공편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그리고 세이플 등 미국의 3대 도시로의 눈소통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도착 즉시 미국과 캐나다의 50여개 도시로 갈아보 모셔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기사서비스와 요금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즉, 한국인 여승무원의 친절함 서비스와 더불어 이코노미 요금으로 익히 알려진 플래츠 서비스를 드리고 있으며, 여행기회에 따라 무료여행의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미국여행을 원하시면 노스웨스트 항공을 이용 하십시오. 가장 많은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4시간
시카고	4시간
세이플	4시간
뉴욕	4시간
샌프란시스코	4시간
홍콩	4시간

예약은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 오리엔탈로 해 주십시오. ●로스앤젤레스(서울) 753-6106/9, 755-0416/7, 777-9786 ●시카고(서울) 778-8240/1 ●세이플(서울) 752-2394/5 ●뉴욕(서울) 776-0181/7 ●홍콩(서울) (051) 44-2240

이제부터 노스웨스트 오리엔탈입니다.



人間・技術・未來



“단기자금융의 명지휘자”

똑같은 명곡이라도 지휘하는 사람에 따라 전해지는 감동이 다르듯이, 같은 투자라도 투자대상에 따라 안전성과 수익성은 차이나게 마련입니다.

금성투자금융은 고객여러분이 맡겨주신 귀중한 재산을 원하시는 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단기자금융의 명지휘자입니다.

영업안내

CP (신종기업어음)

● 수익률: 최고 연 13.53% ● 1,000만원 이상 ● 180일 이내

CMA (어음관리구좌)

● 잔고 400만원 이상으로 예금 및 인출단위는 제한없음

● 180일 단위로 자동 연장 ● 예상수익률: 연 1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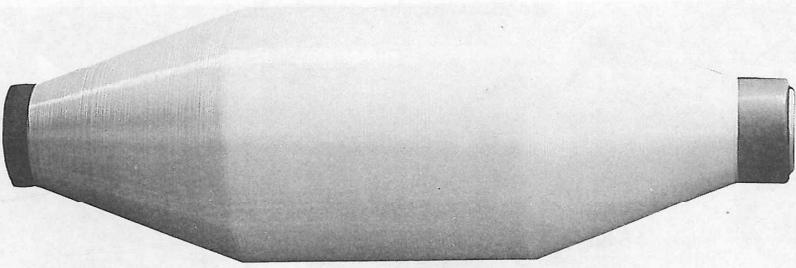


금성투자금융

을지로입구 내외빌딩 2층 대표전화: 754 - 7541

합성섬유에서 정밀화학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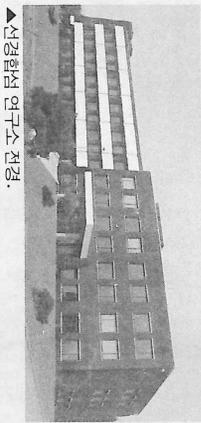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첨단산업에 도전하는 선경합섬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이끈이온 선경합섬은 국내 최대의 포리에스테르 섬유 및 아세테이트 섬유업체로서 의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포리에스테르 난연사(難燃糸), 제진사(制塵糸), 극제사(極細糸)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합성섬유의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기술과 인재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선경합섬은 첨단 의 섬유산업으로부터 쌓아올린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첨단산업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세계에서 3번째로 포리에스테르 접착체를 개발해 냈으며 첨단산업의 신소재 탄소섬유(Carbon Fiber)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선경합섬은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시장에서 세계 일류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만이 지름길을 확신하고 탄소섬유, 엔지니어링 포라 스틱을 포함한 신소재분야, 의약품, 농약 등의 정밀화학분야 등 미래의 첨단 산업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경합섬 연구소 전경.

고분자 화학의 결정체 포리에스테르 접착제

선경합섬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포리에스테르 접착제는 미세한 분자사이로 깊숙히 침투하는 독특한 성질때문에 자기테이프용, 인쇄잉크용, 도로분야 등 특수용접착제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의 첨단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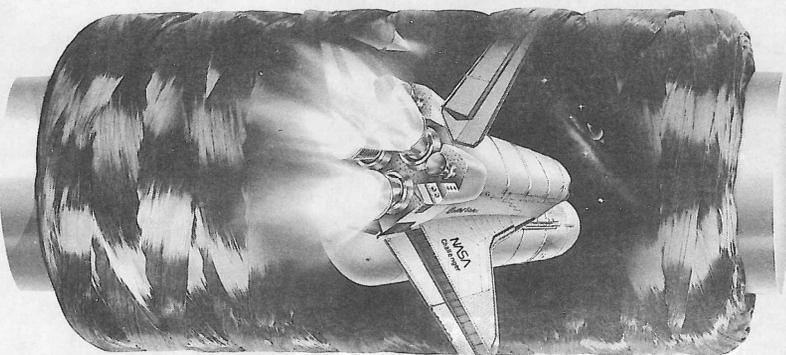
국내 최초로 개발한 국산의 신소재 탄소섬유

선경합섬의 한국기계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탄소 섬유는 강철보다 5~6배나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훨씬 가벼운 혁신적인 신소재로써 스포츠, 레저용품에서부터 무기산업, 자동차, 비행기, 우주산업까지 그 용도가 다양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기술제품입니다.

합성섬유에서 정밀화학까지, 첨단기술의 산실 선경합섬연구소

“보다 앞선 기술이 보다 밝은 내일을 창조한다”는 기술선도 기업으로써의 사명감을 가지고 선경합섬 수원 공장내에 최신 연구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선경합섬 연구소는 핵자기공명장치(NMR), 적외선 분석장치(IR), 전자현미경 등 최신 연구설비와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합성섬유에서부터 신소재분야, 정밀화학분야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산업을 이땅에 꽃피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 鮮京合纖株式會社